월간 PIGHEAD LAB

피그헤드랩





33호

2025.5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ISSN 3059-0280

한량윤씨_ 키작은 할머니

두번째 원고

이채연_ 엄마 이모 나 경주 여행 1

스물아홉번째 원고

X_ 그 곳에 가고싶다 : 인천(Incheon)

열한번째 원고

김희진_ 쿵!

스무번째 원고

오종원_ 수면제 경험기

서른한번째 원고

키작은 할머니



한량윤씨
게으른 창작자

벌레도 많고, 소똥 냄새나고, 조용해서 지루해. 또래 친구들도 없고, 재미있는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깡시골이야.

가까운 곳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이나 바다도 없고, 그렇다고 산세가 좋은 곳도 아니다. 누런 흙투성이 논과 밭이 전부인 그냥 그저 그런 곳.

내가 갖고있는 시골집의 첫 인상은 불편하고 재미없는 곳 그 자체였다.

그런 그곳에 내가 스스로 찾아 오다니.. 정말 인생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찾아간 시골 집을 마주하는 일은 감히 상상을 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요양원에서 계셨으니, 이 집은 적어도 5년 이상 방치된 집이 되었다.
깔끔한 성격의 아빠는 일년에 두어번 정도 나름대로의 빈집 관리를 하시고 계셨다.
 그 일들은 추운 겨울이 되기 전 수도관을 잠그고, 봄이 오기 전, 주변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다. 선산의 잡초를 정리하고 돌보는 일도 포함된다.

그래서 그런지, 빈집 치고는 참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장거리 초행길 운전이라 오후 늦은 시간 무렵에 도착했고, 나는 남편에게 시골 집을 소개시켜줬다.
‘인사해,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살던 집이야..!’

그렇게 싫었던 시골집은 한순간 나의 일부가 되어 소개되어지고 있었고, 으쓱해지는 감정이 생겨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여기는, 원래 할아버지 방이 있었고 그 옆에는 소를 키웠던 곳이야. 그리고 저기 끝방에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던 곳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아빠가 주로 사용하시곤 했어. 그리고 이쪽은 마지막으로 남은 아궁이야 아직도 불을 떼면,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진다!? 이쪽이 안방이고, 여기 대청마루 봐바. 나무가 끝내주지? 100년이나 된 집인데 ...”

이렇게 내 입에선 줄줄이 집 소개가 끊임이 없이 흘렀다. 어떠한 도파민에 취했는지 나는 이 집을 미화시켰다.

멈추어진 궤종 벽시계, 한눈에 보아도 꽉 찬 이불장 안 산더미같은 이불들, 마루 밑엔 언제 쓰였는지도 모를 녹슨 농사 도구나 빗자루, 슬리퍼, 장화, 이상한 액체가 들어있는 병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방이나 마루 구석에는 거미줄은 기본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죽은 벌레들의 시체들, 밀랍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벌집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
좀 전에 신이 나서 집을 소개했던 나는 곧, 목격된 비호감의 피사체들을 보고 찡그릴 수밖에 없었다.
‘아, 그래 내가 이래서 시골을 싫어 했지..!’



마루 벽에 걸려있는 멈춘 벽 시계

빈 벌집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생전 키가 작은 할머니께 맞춰진 살림살이들, 빨래를 널어놓는 장대 밑에는 노란색 플라스틱 빨래집게 두 개가 빗물과 함께 고여있었다.

안방에는 할머니 이름 '이옥이'가 쓰여진 그림이 커튼이 있는 창가 벽에 낮게 붙어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투박한 손으로 색연필을 잡고 색종이를 오리고 붙였을 장면을 떠올리니, 코끝이 찡해졌다.
아들도 미대를 갔고, 미술교사로 평생 살았지. 손녀도 그 애비를 닮아, 또 미대를 가고, 그림을 그린다고 했지.
그런데 정작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려 본적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적도 없었어.
그래 어쩌면 할머니도 그림을 그리면서 나처럼 아빠처럼 살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공작새처럼 화려한 닭의 그림을 나는 조심이 떼어 숨겨 놓았다. 다음에 내가 이 공간을 잘 만들고 나면 할머니의 작품도 전시를 해 볼 참이다.

온 집안의 불을 켜고, 열어보고, 뒤적이고, 들여다보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집 마당으로 한 아주머니가 걸어 들어오셨다.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신데 .."
딱 보아도, 우리 할머니와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얼른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 할머니 손자(?) 보라 ..라고해요."

"아..! 네가 보라구나"

알고 보니, 이 아주머니는 우리 집 바로 앞에 살고 계신 분으로 예전부터 아빠가 말씀하시길, 우리 앞,옆집은 파평윤씨 집안의 가까운 친척뻘이 되는 분들이라고 하셨다.(이 아주머니는 내 입장에선 큰 어머니뻘, 이 되는 분이니 '아지매'라고 불러야 한단다.)



할머니의 닭

물론,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끼리 오가는 대화를 통해 할머니와 가깝게 지내시며 왕래를 하신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 내적 친밀감은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마주할 날은 없었기 때문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어색함을 깨기 위해 왜 때문에 이곳에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안심시켜드리기 위한 설명을 했다.

설명을 들은 아지매는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그래, 네가 보라구나, 보라보라, 네 할매가 만날, 우리보라, 우리보라 했지.”

어렸을 때 가끔, 할머니가 서울 아들의 집에 오실 때면 나는 할머니랑 같이 잠을 잤다. 할머니는 내가 잠들 때까지 이마부터 머리를 쓸어 올려주며 소곤소곤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왜 고추를 떼어놓고 태어났냐는 이야기였다.

‘고추라이팅’

그렇다. 할머니는 대놓고 그렇게 나에게 고추라이팅을 했다.
“할머니, 원래 내가 엄마 뱃속에서 고추를 갖고 있었는데에~ 갑자기 빨리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깜빡하고 놓고 나왔어..”
내가 이렇게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면, 할머니는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그걸 놓고 나오면 어째~” 하셨다.

그리고 할머니는 수년 후에, 작은 아버지들로부터 태어난 그토록 원하던 ‘고추를 까먹지 않은 손주’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할머니와 멀어져 왔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할머니는 내가 없는 이 곳에서 내가 생각한 것 보다, 더 많이 내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엄마 이모 나 경주 여행 1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평소 엄마에게 하는 말투를 적용해 평어체로 썼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초 나, 엄마와 이모 이렇게 3명이서 2박3일 경주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조합의 여행은 처음이다. 내가 먼저 엄마와 이모에게 여행을 가자고 말을 꺼냈다. 지금 아니면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왜 이런 생각이 했을까? 생각해보면... 최근 친구 부모님의 부고 소식에 부모님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더 실감났고, 이제 청소년이 된 아들에게 쏟는 나의 힘과 시간이 이전 보다 줄어들면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지만 심적으로는 불쑥 찾아온 아들의 사춘기로 귀여운 내 작은 아가에서 까칠하고 땀내나는 큰 아이로 변해버려서 당황스러웠고 사춘기 특유의 짜증을 참고 참아 내야 하는 감정 노동을 하느라 힘든 보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4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 들면서 갱년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체감이 되면서 이제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할머니'라든지 '생의 마무리'같은 말이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아이를 챙겼던 시간에 늙어가는 엄마를 생각하는 시간이 자연스레 생기게 되었다. 나도 엄마와 같이 늙어 가는 시간이 되었다.
엄마 74세, 이모70세로 완연한 노년기다. 요즘은 70대라 해도 노인 같아 보이지 않는 노년의 멋쟁이들이 많다. 하지만, 두 분은 아니다. 굴곡진 인생을 사신 편이라 자기 몸을 챙기지 못하셨다. 빨리 늙었고, 매일매일 새롭게 다르게 아픈곳이 생기고 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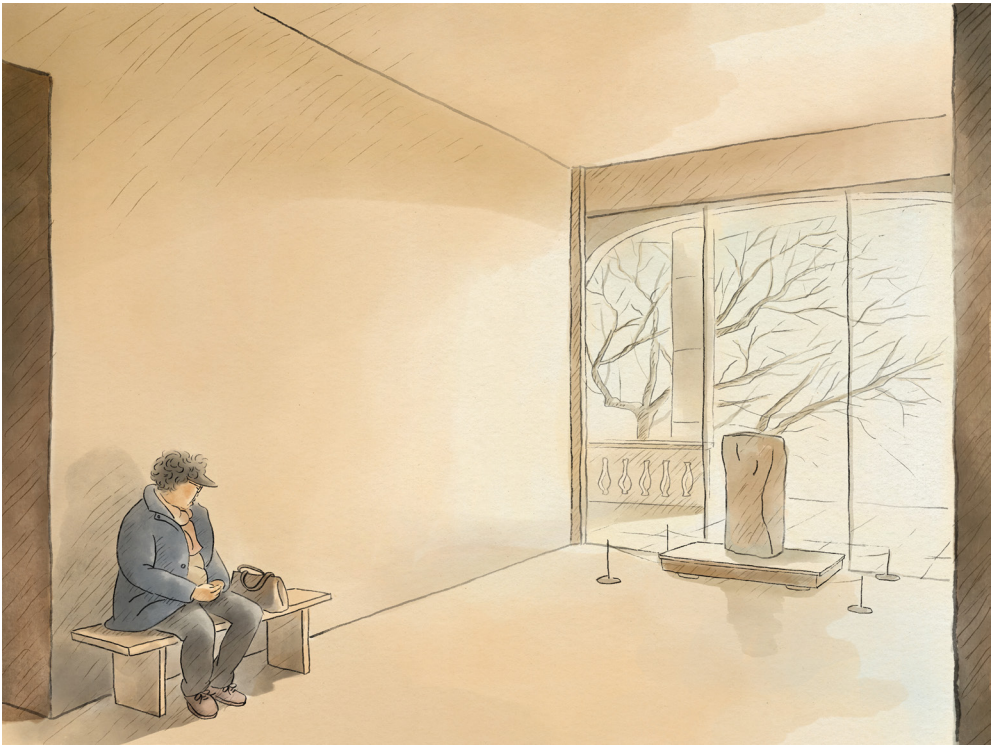


그림1_졸고 있는 엄마. 경주 박물관, 2025, 디지털 페인팅

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다.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말이다. 마음 같아서는 현대인의 만병통치약-금융 치료를 선사해 드리고 싶지만 정말 아쉽게도 현재의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원래는 나와 엄마 둘이서 여행 가려고 했는데, 이모가 생각났다. 이모는 수십년 전 어떤 사

연으로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 둘 데리고 서울에서 언니인 우리 엄마가 있는 울산으로 내려왔다. 아이들과 살기 위해 주방일 등등 온갖 궂은 일을 했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독립했고, 이모는 혼자 살만큼의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병원에서 요양 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일년에 300일 이상은 병원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모를 만나려면 이모가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 명절에도 거의 병원에 있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름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너무 여유 없이 사는 것 같았다. 이모를 병원에서 나오게 하고 싶었고, 이모에게도 일탈이 필요 할 것 같았다. 또 엄마와 나는 명랑한 성격이 아니다. 둘이서만 여행 가면 재미없고 다툴 것 같았다. 엄마랑 쿵짝이 잘 맞고 발랄한 성격인 이모와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바로 이모에게 여행가자고 연락을 했다. 너무 좋아하면서 여행날짜에는 일 안 잡을 테니 꼭 가자고 했다.

어디로 여행을 갈까

이런 기회가 별로 없고, 이왕 가는 거 적어도 제주도 정도는 가야지 여행을 다녀왔다는 티가 날것 같았다. 그래서 제주가 첫번째 여행지 후보지였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는 충북 진천, 엄마와 이모는 울산. 출발지가 다르다. 각자 알아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와야 하는데, 단체 여행만 다닌 엄마와 비행기를 탄 적 없는 이모가 제대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제주에 무사히 도착한다 해도 운전이 서툰 내가 렌터카로 엄마와 이모를 모시고 관광지를 다닐 상상을 하니 막막했다. 맛집에 주차하기는 생각만으로도 고개가 저어졌다. 그래서 제주는 패스.

엄마가 따뜻한 남해나 장흥....같은 남해안쪽에 관심을 보여서 그쪽을 고민했다. 울산에서 가는 차편을 찾아보니 시외버스 노선이 없었다. 경유를 해야 했다. 차만 타면 잠들어버리는 엄마가 자다가 경유지를 놓칠 까봐 걱정 되었다. 내가 사는 진천은 워낙 작은 동네라 대중교통으로 서울 말고 다른 도시로 가려면 경유는 기본이고, 대중교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든다. 어디를 가든 교통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라 엄마와 이모의 교통만 고려

하면 되었다. 울산은 광역시로 큰 도시인데도 근방 도시인 남해 쪽으로 가는 교통편이 없었다. 요즘 시외버스 노선이 많이 없어졌다더니 진짜 그랬다. 버스교통편을 기차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텐데 다들 운전해서 다니시나, 지방에 살면 운전이 필수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에 가야지 엄마와 이모가 울산에서 대중교통으로 이용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안동과 경주로 후보지로 압축하고 엄마와 이모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자매의 픽은 경주였다. 아마도 내가 가기에 안동보다는 경주가 편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다. 경주는 관광지라 볼거리 많고 숙박도 괜찮을 것 같고, 울산에서 시외버스로 1시간 내로 갈 수 있으니 괜찮은 선택인 듯 했다. 그런데 엄마와 이모에게 거창하게 여행가자고 바람 넣어놓고, 울산 옆 동네인 경주로 정해서 미안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클 텐데..... 그래도 '마음 편한게 제일이지' 라고 위안하며 여행을 준비했다.

숙박
뜨끈한 온돌방에서 뒹굴뒹굴하고 싶다는 이모의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1박은 고민없이 재빨리 온돌 숙소로 예약했다. 온돌 숙소는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온돌 좌식방을 원한다면,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나머지 1박은 전통의 도시 경주니까 한옥숙소를 빌리고 싶었다. 깨끗하고, 아늑하고, 인스타에서 봤을 것 같은, 인테리어가 잘된 감성숙소 말이다. 틈나는 대로 검색에 검색을 한 끝에 깔끔하고 중심지 황리단길에 위치해 있어 교통도 좋고, 근처에 식당이 많은 한옥숙소로 빌렸다. 인테리어가 이뻐서 인증샷을 찍기 좋고, 3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히노끼 욕탕도 있고, 브런치 까페 스타일의 조식이 나와서 좀 비싸서 약간 고심하기는 했지만, 이런 숙소에 가본적 없는 엄마와 이모에게 경험하게 해 줄 생각을 하니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고, 망설임 없이 결제를 했다. 아... 참 나도 이런 감성숙소는 처음이다. 한옥 툇마루에서 인증샷도 찍고, 욕탕에 입욕제를 넣고 다 같이 물에 들어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나와서는 목욕가

운을 입고 TV를 보며 와인이나 맥주를 한잔하는 상상을 했다. 과연 이 상상은 그대로 실현이 될지는.....
숙소 결정요인에는 나의 낭만충족도 있었지만, '교통'이라는 요인이 컸었다. 엄마와 이모는 다리가 불편해서 많이 걷기는 무리다. 짧은 일정이지만 뚜벅이 여행이라 신경이 쓰였다. 여행하다가 피곤하면 바로 들어와 쉴 수 있어야 했다. 여행 계획을 잡을 때도 최대한 동선을 짧고, 간결하게 잡으려고 했다.

계획
나는 뭔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순간 머리가 정지되는, 임기응변에 아주 취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평소 당황하기 싫어서 계획을 짜는 편 이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mbti - j형 되었다. 이번 여행도 어른들 모시고 가는데, 우왕좌왕 헤멜까봐 걱정이 되어 초간단한 일정을 짰다.

일정표

	8 일	9 월	10 화
아침		맥모닝	숙소 조식
오전	울산-경주 진천-경주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숙소 체크아웃 비단벌레 열차(예매) 첨성대 교촌한옥마을	휴식 숙소 체크아웃 대릉원
점심	ㄱㄹ김밥	두부전골	
오후	호텔 체크인, 짐 맡기기 국립경주박물관 동궁과 월지	금관총 황리단길 한옥숙소 체크인	
저녁	사찰음식(예약)	치킨 맥주 반신욕	

드디어 여행, 기억에 남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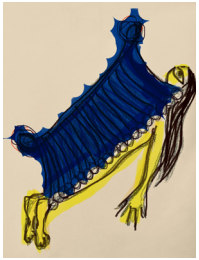
졸고 있는 엄마
나는 기차를 타고 경주역에 내리고, 엄마와 이모는 버스를 타고 경주 시외 버스 터미널에 내린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다. 터미널이 우리가 갈 관광지와 가깝기도 하다. 엄마와 이모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합실 들어서서 엄마를 찾았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또 더 많이 늙었네! 엄마의 안경 넘어 눈은 주름인지 눈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힘이 없어 보였다. 곧 눈꺼풀이 광대뼈까지 내려앉을 기세였다. 내가 다가가서 인기척을 하니 엄마의 눈은 바로 힘이 들어간다. 무릎에 손을 짚고 일어났다. 저번 명절 때 보다 확연히 안 좋아 보였다. 걱정보다는 짜증이 가슴에서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목이 아팠다. 오늘은 즐겁게 여행 해야 할 좋은 날인데 우거지상으로 있어서는 안되지. 이렇게 멘탈을 챙기고 엄마와 이모에게 인사를 했다. 집 나와서 마냥 좋고 해맑은 할머니 둘, 엄마와 이모. 나만 믿는다며 신나 했다. 짧은 일정이지만 이 여행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몰려왔다. 나는 마냥 슬퍼졌다.
터미널에서 걸어서8분정도 거리의 황리단길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길을 나서는데 어정쩡한 다리로 걷는 엄마가 신경 쓰였다. 작년 까지만 해도 산길을 날다람쥐처럼 날아다니셨는데...
점심은 간단하게 경주의 유명 김밥집에서 먹었다. 내가 점심메뉴로 김밥을 선호하기 하고,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전국구로 유명한 김밥의 맛이 궁금했다. 엄마와 이모가 놀러와서 김밥 같은 걸 사 먹냐며 잔소리 할까봐 걱정했는데 맛있게 잘 먹었다. 다행이다. 내 말을, 내 계획을 잘 따라 주었다. 어른들이 자식과 여행 갈 때 갖추어야 에티튜드는 일단 합격을 주었다.

첫번째 방문지는 경주 박물관이다. 평소에 엄마가 유물이나 문화재 구경을 좋아해서 꼭 모

시고 가고 싶었다. 또 요즘 경주 박물관 전시 디스플레이가 멋지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 소풍 갔던 기억도 나고 해서 궁금했다. 그 땐 고리타분하다고 대충 설렁설렁 봤던 기억이 난다.
박물관이 정말 소문대로 확 바꼈다. 고오급 백화점 같다. 유물 쇼핑하러 온 느낌이 났다. 엄마와 이모도 멋지고 볼거리 많다고 좋아했다. '어째 옛날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을까? 신기하고 대단하다' 라는 말을 연신 했다. 전시를 반절 정도 봤을 때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이모는 이리저리 자유분방하게 관람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안보였다. 어슬렁 찾아 다니다, 전시장 밖 통로 벤치에 앉아서 졸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다. 때마침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엄마에게 비추고 있었다. 스포트라이트 같았다. 갸우뚱 숙여진 고개, 감겨진 눈, 살짝 비틀린 입술, 그 입술에 흐를 듯 말듯 한 침 방울..... 딱 '햇볕 쬐며 꾸벅 조는 노인'이다.

엄마는 노안에 초등 저학년 한글 실력이지만 문화재 안내문 같은 그런 글자들은 활자 중독증 있는 사람처럼 다 읽었다. 그런데 박물관안에의 유물 안내문이 엄마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았나? 그래서 피곤하셨나? 아니면 걷기가 힘들었나?
이번 여행에서 엄마는 밤에는 쪽잠을 자고, 낮에는 틈만 나면 졸았다. 커피를 마시다 가도, 밥을 먹다 가도, 대화를 하다 가도. 엄마! 또 자네~ 라며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울컥한 걸 참느라 힘들었다.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까 걱정이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그 곳에 가고싶다 : 인천(Incheon)

X
작가 & 전시기획자

“....仁川은 나의 인생에서 연이 없던 한국 도시 중 하나였다. 인천을 처음 방문 한 건 나의 첫 직장에서 알게 된 한 언니 때문이었다. 회사에서 나는 언니의 지하철 1호선의 인천 사람과 서울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언니의 지하철 출퇴근 괴담을 재미있게 듣곤 했다. 이 건 당시 나의 강남의 지루한 일상에 재미를 줬다. 마치 건조한 김밥에 참기름 바르듯 언니는 나에게 발랄함을 가져다줬다....”

I
2005년

나는 첫 직장에서 마케팅 부서 소속으로 번역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우리 팀에 과장은 변덕스럽고 재미없는 미군빠 엘리트 여성였다. 서강대 출신으로 위로 언니 두 명은 미국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한국에는 들어올 생각이 전혀없을 뿐더러 결혼 할 생각도 없어서 과장의 부모는 하나 남은 막내 딸인 과장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다. 과장은 당시 이태원에서 노는 한국 여성을 싫어했는 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첫 출근 시 주말에 뭐했냐는 질문에 내 대학 친구가 삼각지 미군부대 타코벨에서 일을 해서 친구보러 놀러간 얘기를 했다. 이후 난 그녀에게 점수를 깍여 버렸다. 과장은 미국에서 어학 연수를 했고 미

국의 모든 걸 좋아했지만 영어로 말할 땐 일부러 발음을 굴리면서 하지 않고 한국 스타일로 말을 했다. 이건 그녀의 애국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엄청 미국식 영어 발음을 굴리며 머리에 든 것 없이 행동하는 한국인을 싫어해서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WASP' 애들하고 놀았는지, 영국식 영어를 말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잘 생긴 프랑스 남성이 오면 엄청 좋아해서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가늠이 안 잡히는 사람이었다. 그냥 서양 출신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은 외국인 남성을 다 좋아하고 유명 메이커를 좋아하는 한국 된장, 쌈장, 고추장녀 총집합이었다. 단지 엄청 외무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를 감추고 싶어한 듯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에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다.

이 과장 밑에서 제일 오래 일한 영은 언니는 인천 출신이었다.

당시 언니는 인하대 영문과를 4학년으로 다니고 있었다. 원래 애니매이션을 좋아해서 졸업을 앞두고 우리 회사에 1년 전부터 출근하고 있었다. 언니는 미국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사우스파크(Southpark)'의 팬이었다. 녹차를 즐겨마시고 다른 나라 음식이나 과자에 매우 흥미가 있었다. 그림도 잘 그려서 스스로 녹차왕자 캐릭터를 만들고 나에게 보여줬다. 과장이 아끼는 직원이어서 그런지 회사에서도 신임이 컸지만, 나중에 안 결과 역시나 영은 언니도 구린내 나는 우리 과장을 엄청 싫어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에 온지 얼마 안되서 난 홍대에서 영국팝 회원으로 활동하며 넷상친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영은 언니와는 넷상에 아는 사람과 서로 교차하면서 술 마시며 친하게 되었다. 우리는 같이 과장을 헐뜯는 걸로 시작 되었지만, 취향도 약간 비슷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을 떠날 때 영은 언니는 나를 인천에 하루 밤을 재워줄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 날 언니가 사는 동인천 집까지는 택시로 갔고 집에서 하루 같이 자고 다음 날 언니 어머니가 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지금 내 기억에는 동인천이니 주안이나 제물포 부근이 아닐까 싶다. 지금 생각하니 언니 엄마가 동네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혼자 남편 몰래 자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언니와 비슷한 성격으로 기억된다. 바로 '모전유전'이었다.
영은 언니와는 2013년에 마지막 연락이 닿았는데 고양이 3마리와 서울 어디선가 살고 있었다. 방긋 웃는 언니의 미소가 언니 엄마와 붕어빵처럼 닮았었는 데 지금도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아마도 지금은 인천 어디가에 살지 않을까?

II
2015~2016년

한국에 들어오고 1년이 지나서 인천 아트 플랫폼(Incheon Art Platform)에 프랑스 친구 니꼴라가 아트 인 레지던스를 하게 되었다. 당시 니꼴라는 베를린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액자 제작 회사에서 일을 하며 작가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베를린에서 한국 작가를 만나서 한국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한 친구였다. 니꼴라는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번 한국 방송국에 외국인이 나오는 여행 프로그램에 캐스팅되서 면접을 갔었었다. 인터뷰에 한국에서 맘에 안드는 게 뭐냐는 질문에 "새누리 당이요" 라고 한국어로 답해서 즉시 낙방되었다. 역시 니꼴라는 날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을 짬뽕시킨 비판의식이 강한 개념 예술가였다.

니꼴라와는 주말에 시간 되면 종종 보곤 했는데 니꼴라가 인천과 서울이 이렇게 먼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레지던스 기간 내내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 홍대, 종로, 이태원을 왔다갔다 했다.
난 하루는 너무 우울한 나머지 회사에 병가를 내고 차로 화성에서 인천까지 니꼴라와 니꼴

라 친구인 헝가리 여자 작가를 보러 인천까지 갔다. 만나서 동인천 차이나타운을 같이 걸으면서 밥을 먹고 레지던시 내부 방이랑 전시실을 구경했다. 놀러간 날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어가는 날씨여서 아트 플램폿에는 을씨년스럽게 바람이 불었다. 헝가리 여자 작가는 만나자마자 배가고프다면서 신포우리만두로 날 데려갔다. 난 유행도 지난 신포우리만두를 왜가야하는지 몰랐는 데 신포우리만두가 인천 신포시장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난 이 것도 작년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웃긴 일은 그 날 그 헝가리 작가는 만두를 시키고 난 밥을 시켰던 것 같다. 난 쫄면은 싫어하기에 신포시장에 다시 갈 일은 없을 것이다.
니꼴라와 헝가리 작가가 레지던시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간 후 이듬해 아트 플랫폼에 레지던시 결과전이 열렸다. 난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이들의 작품 전시 사진을 찍고 페북으로 공유해줬다.
지금도 이 두 작가가 당시 아트 인 레지던시에 만족했는지 궁금하지만 사실 이들은 한국을 경험하는 것이 더 큰 목표였던 거 같다. 인천보다는 서울에 더 이벤트가 많았기에 네트워킹을 하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었고 특히 니꼴라는 인사동 사이아트센터에서 일주일 간 개인전을 하면서 그나마 레지던시 성과를 누릴 수 있었다.

난 아트 플랫폼이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위치해서 지역적 역사성을 띈 전시가 더 많이 생겼으면하는 바램이었다. 첫 방문 시 나는 이 곳이 한국과 중국의 이질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인천의 과거의 역사를 아우르는 장소에 위치했다고 느꼈다. 지금은 인천의 중심이 동인천보다 송도에 몰리지만 송도는 사실 매립지에 아파트, 대학과 주요 대기업만 즐비해 경제적 공간으로 만들어져 인간의 기능성만 보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지리상 너무 끝에 위치해 여기서 나가려면 어디든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송도의 탄생 이후 인천 사람들은 인천의 경제가 가속화되며 점점 부의 도시로 되어간다고 긍정적으로 본다.

III
2023년

최근에 인천에서 오래 산 분의 얘기를 들었다.
“...송도에 온 사람은 인천에서 하는 모임에 참가하면 송도 사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송도 이외 사는 사람하고는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송도 내부에서도 사는 지역마다 차별을 하죠...”
송도에서 사는 동을 구분하는 ‘공구’ 라는 표현도 재미있는 표현법이라고 느낀다. 매립지 개발을 시작한 순서대로 이 공구 번호가 매겨졌다고 한다. 정말 기능성만 계산하여 도시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송도 사람들은 차이보다는 계급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 단지 부동산이 인천에서 최고로 높아서라기보다 송도 사는 사람들 스스로가 본 인천 사람보다는 외부인이 많기에 부족한 내면의 지역성을 부루주아 의식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다. 마치 강남에 원래 산 사람이 아니라 일이나 결혼으로 이주한 사람이 돈으로 더 강남출신처럼 잘난 체하듯말이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인간이 사는 땅값이 비싼 곳 어디나 존재해서 그리 큰 일은 아닌 듯하다.

회사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다른 팀 팀장이 나에게 송도로 이사올 생각이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설계 엔지니어들 포함 건너편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들 대부분 송도에 아파트를 사는 것이 꿈이다. 송도 사람들의 구릿내 나는 대화는 인간의 영역이 물질적인 축적이외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 사람 모두가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회사 첫 인사를 늘 이렇게 시작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난 이런 커피톡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사실 '송도'라는 공간은 (인천의 유명한 '구송도' 아님) 기능만 중시한 체 공간에 역사나 기억은 없다. 당연 매립의 역사와 바다의 조수간만의 역사는 존재한다. 더구나 매립으로 인해 엄청난 해양 박테리아와 마이크로조직체가 없어졌고 물고기들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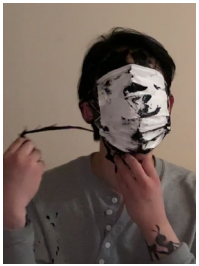
인천은 그래도 송도로 인해서 경제적 영역을 넓히고 지지부진했던 도시 개발과 도시 발전을 잘 이뤄나가는 거 같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부쩍 늘어난 외국인 유입으로 어디가는 외국인을 볼 수 있다. 중국인을 비롯해 내가 사는 옆집, 앞집, 뒷집 모두 외국인이고 이들 모두 중앙 아시아, 동남아 출신이다.
내 집에서 3 키로 걸어가면 함박마을에 중앙 아시아 거리가 있다. 나는 종종 이 곳에 들려 빵을 사곤한다. 이들과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즐거운 얘기를 나누는 것이 내가 인천에 머무는 동안 느끼는 몇 안되는 기쁨이다. 또한, 주말마다 터미널 근처 재래시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사면서 평범한 일상을 시민들과 같이 나누는 것도 기쁘다. 그리고 퇴근 후 출근 전 남동공단 근처의 천길을 하프 마라톤을 연습하며 뛰었던 기억도 나에게는 즐거운 추억이었다.

난 수 많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도시를 방황하며 느낀 것이있다. 누구에게나 어느 도시에서 어떤 구역에서 어떤 주택에 살고 어떤 차를 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선택은 나의 내면의 행복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이는 편리함과 관련이 더 크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실 편리한 삶을 살면 살수록 내면의 우울증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우리가 호모 루덴스가 되어가는 발전 아닌 발전은 돈과 물질, 계급의 영향을 넘어서 유희와 창조의 기회를 인간에게 가져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는 도전과 극복을 통해 발전하는 존재이다. 이 복잡한 도시에서 나의 선택과 자유가 넓어질수

록 인간은 계급을 넘어서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에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을 찾고 느끼는 것이 복잡한 도시 공간에서 나의 영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의인거 같다. 그리고 물론 이 과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큰 여정이며 도전인 것이다. 우리는 과거 평범한 계급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다. 난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고민하는 것이 무언인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도전이 굳이 휘황찬란하고 클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약간은 우울해 한다면 소비나 축적이 아닌 뭔가 다른 창조적인 공간을 도시에서 찾고 있을지 모른다.



쿵!



김 희 진
노동자

꿈이었다. 누군가 잠을 깨워 당장 이곳을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밖에서 기다릴테니 채비하고 어서 나오라는 선언. 나는 영문도 모르고 꿈결에 당장 필요한 것을 가방에 넣는다. 세면도구랑 옷가지, 위스키도 한 병 챙기고 노트북과 이런저런 낱말들. 괜한 욕심들. 후회하지않을까 고민하다 더 생각하지 않고 가방에 하나씩 집어 넣는다. 문 틈사이로 얼른 나오라 외침이. 나는 마음이 급해져 잊은 것을 하나 남겨두고 가방을 들쳐멘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다.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은 적은 없다. 다만, 한 번쯤은 따라오리라 생각했다. 잊은 것이든 버린 것이든, 나는 그것을 떠나보내지 못했다. 가방은 입을 열지 않는다. 사라진 줄 알았던 말들이 그 안에서 썩고 구겨진 이름들이 서로를 찢고 있다. 그들 이 싸우다, 의미를 잃고, 모서리만 남았다.

그 소리를 나는 매일 듣는다. 듣고, 모른 척 가끔은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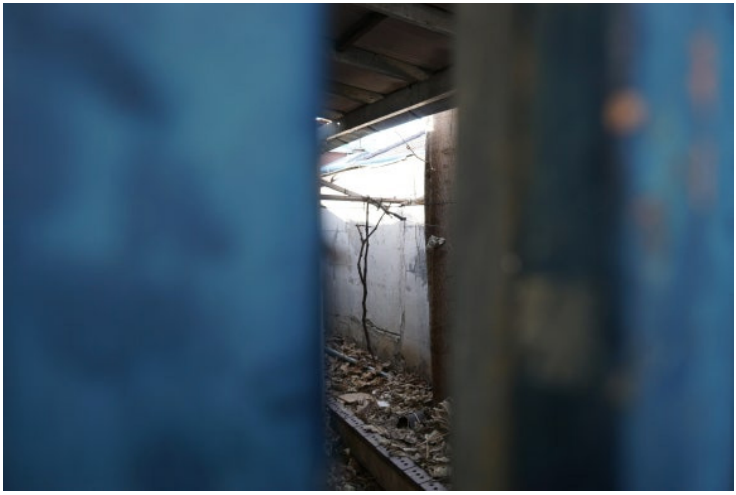
손을 흔든다. 쉬고 갔을까? 아직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도착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 없는 이일 수도 있다. 손을 흔드는 일은 마치 파도를 보내는 일이다. 어떤 응답도 약속받지 못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남길 수 없지만 흔들어 보내고 보내서 여기를 가늠한다. 쓰고나면, 그렇게 하고 전시하면 보이는 결핍이나 상처들을 바라보는데 이내 나를 눈치채고 그것은 모습을 감춘다. 단 한 번만 확실한 얼굴을 보여주길. 그렇게 나를 아주 떠나는 자여. 한 편 알 수 없는 이를 나는 계속 기다리면서, 글을 적고 기호를 만들고 알 수 없는 일을 자처하며 껴안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주워 먹고자 주머니를 채우고 후줄근해진 천을 동

여매지도 못하는 눈동자. 차가운, 가공된, 하지만 텁텁한 널빤지에 입술을 대고 멀어지는, 사라지는, 부서지는, 철거된 우리를 황홀하게 떠나 보낸다. 마치 그게 무슨 사랑인 것 처럼.
어디에 너를 데려가고자 한다. 그것이 숨기전에, 말이 끝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흰 벽이 사라지기 전에, 출처가 알려지기 전에. 그 때까지는 이 아름다움이 지치지 않을 것이다. 하필이면 단종된 제품을 사랑한 나는 비겁하지만 전시된 마지막을 훔쳐 달아나기로 결심한 후에 조명을 하나 빌려 그것을 일부 깨트리고 불을 켜 파열된 부분의 날을 따라 흐르는 입자를 쳐다본다. 처지를 원망하더라도 그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곧장 그곳에 향하지만 결국 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
제발 울지 말라고 이미 망친/돌이킬 수 없는, 불량인 언어가 짭짭 소리를 낸다. 이미 저질러진 꽃은 이외의 결실은 생각도 하지 않고, 밖으로 달려나가 아까 내놓은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 나와 닮은 나비를 찾겠다나. 하지만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발견하더라도 데려오는 것은 더 힘든 일이다. 생각해보면 더 이상은 별로 이성적일 필요가 없다. 이미 던져지면 던져졌기 때문에 벗어난 것이고 벗겨졌기에 떨어질 것이며, 그것은 자체로 떨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환상 안에 있는 나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반복과 반복... 또 회전 충돌 ... 낙하.... 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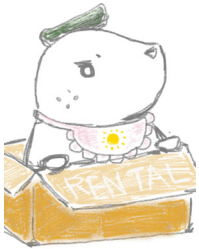








수면제 경험기



오 종 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잠을 잘 깨는 것과 잘 잠드는 것. 전자는 예측한 시간 즈음에 눈이 떠지는 타입이고 후자는 어디든 머리만 대면 잠드는 타입.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물론 이게 원한다고 갖는 것은 아니겠지만, 잠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수면부족이란 늘 괴로운 것이다. 피로누적을 달고 사는 얼굴은 아침마다 짜증이 잔뜩 난 팬더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어디서든 편히 자는 사람들이 부러웠었다.

과거에는 잠을 잘 깬다는 것이 나름 장점처럼 느껴 지기도 했는데, 살면서 늦잠을 자 약속에 늦거나 했던 일은 별로 없었다. 아무리 늦게 자도 해가 뜨면 눈이 떠졌다. 그러다 보니 수면시간을 8시간 이상 가져본 적이 별로 없다. 잠을 덜 잔 시간만큼 나는 다른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었다. 가령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거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술을 잔뜩 마셔놓고도 다음날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을 하는 것. 이건 삶에 있어 상당한 장점이긴 하였다. 단 체력과 멘탈이 바쳐준다는 가정 하에.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살이에 익숙해져 갈수록 내 체력은 반비례해 나갔다. 영원할 것 같은 젊음은 말끔한 멘탈과 활동량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젊음은 꼭 세월만이 아니라 먹고 살기위한 모든 것에서도 야금야금 뺏기고 있었다.



0. 본론부터 넘어가면 나는 근래 수면제를 먹고 있다. 그동안 수면보조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글을 쓰기 위해 검색을 해보니 수면제라고 하더라.
약을 먹은 지는 약 반년정도 되었고, 구체적인 원인은 직장 스트레스이다. “였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의 서러움은 때가 되면 쓰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회사일 등으로 많이 괴로워하다 병원을 찾게 되었다.
혹시나 이 글을 읽는 이 중에, 분명 정신과의원을 방문하는 것에 반감을 갖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뭐 가족이 이를 민망히 여기거나. 나의 경우에는 과거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상담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고, 그때의 경험으로 관련 병원을 방문하는데 크게 거리낌은 없었다. 그래서 타인에게 병원을 권할 일이 있다면, 정신과의원은 “내가 정신이 아파서 간다”기보다 내

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증빙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말한다. 예를 들어 감기라는 게 꼭 기침과 재채기 같은 눈에 띄는 현상이 없어도 걸려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체온계를 통해 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1. 처음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수면제를 처방 받을 것이란 생각을 못하였다. 일단 회사 내 감정적인 상황 자체에 치중하던 상태였고, 수면이라는 것은 이미 어릴 때부터 안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막상 덤덤히 상담을 하다 보니 분노나 우울과 같은 감정적 요인은 다소 추상적이었지만(가령 어제보다 오늘 좀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몇 %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수면의 문제가 먼저 떠올랐다.
또한 글자를 읽지 못한다(글자를 읽을 정도로 집중을 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의사선생님은 ‘감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약’과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해 주셨다. 과거에는 상담치료에 기반하였기에 약을 처방 받은 것은 처음이었고, 사실 기껏해야 비타민제 같은 느낌 아닐까 생각하며 자기 전 입에 털어 넣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다음날 아침까지 꿀잠을 자게 된다.

2. 나는 가민이라는 브랜드의 스포츠 워치를 찬다. 이 브랜드의 시계용품에는 ‘생체 배터리’(바디배터리)라는 기능이 있다. 종종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해 지금의 컨디션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측정해주는 기기라고 생각하면 좋다. 잠을 자면 회복하고 깨어 있는 동안에는 소진된다. 이때 잠을 자는 상태에 따라서도 회복양이 달라진다. 가령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들었다면 20점 밖에 회복을 못한다던가.
대체로 근래 나의 수면은 많이 회복해 봤자 5~60점을 채우는 정도였다. 약을 먹고 난 다음날, 간만에 70점을 넘는 데이터가 나왔다. 내 기준에선 정말 잘 잤다는 의미이다.
잠을 잘 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한번 느껴보게 되었다. 그날 하루의 컨디션은 물론 퍼포먼스까지 달라지게 만든다. 비로소 마음의 여유는 체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것이다. 짜증날 일도 화가 날 일도 한번은 누그러뜨리게 만든다. 싸울 일을 한번 미루어 준다. 그 한번이라는 기회가 나나 나를 둘러싼 환경을 꽤나 쾌적하게 만드는 것을 느꼈다.
물론 이것이 꼭 수면제 덕분인지, 아니면 그 외에 감정을 조절하는 약 덕분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잠을 잘 자고 싶다는 마음 속 깊은 욕구가 해결되었고, 그 힘 덕분에 하루의 퍼포먼스를 더 연장하게 해주었다. 활력을 되찾는 느낌이었다.

3. 그러나 약 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며칠이 지나니 다시금 슬슬 새벽에 깨기 시작한다. 분명 안 먹느니 효과는 있었지만 살짝 아쉬운 감이 맴돌았다.
두번째 방문 당시 의사선생님께 약에 대해 극찬을 했었다. 그러나 나는 슬슬 해당 약에 아쉬움을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약을 처방 받게 되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항우울제라고 한다. 그 효과로 수면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에는 내 잦은 음주 습관을 바꾸려는 의미도 함께 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잠에 들고자 술에 취하고는 하는데 그럴 때 이 약이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큰 효과를 못 보는 듯 하였다. 내가 약에 익숙해지는 것인지, 혹은 요리대회 심사위원 마냥 트집을 잡아가며 까다롭게 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첫날과도 같은 기막힌 숙면은 어려웠다. 비유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중독물질에 빠지는 사람들이 첫 느낌을 잊지 못한다는 인터뷰를 언젠가 본 적이 있었다. 수면제 또한 그러한 것 아닐까. 나는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이번 약은 어떠했는지 꽤나 비평적으로 의사선생님께 나열하고는 하였다.

4. 몇 번째 약이 바뀌었다. 항상 약을 확인하면서 먹는 것은 아니니(오히려 반대로 자기 전 잠옷 갈아입듯 후다닥 입에 털어 넣다 보니) 정확히 무슨 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약은 다소 강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의사선생님이 그리 추천하지 않은 약이었다.
처음 복용하고 다음날 아침, 상당히 심각한 몸으로 알람을 끄게 된다. 더 자고 싶다. 아 너무 피곤하다. 어제 운동을 좀 심하게 했나. 처음엔 약이 원인일 것이란 생각을 못하고 그저 내 컨디션이 안 좋은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낼까 오전 내내 고민하였다. 이 삼일 정도 지나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아 이 약이 매우 세구나.
새벽에 자꾸 깬다는 나의 고민이 몇 번의 약으로 해결이 안되자 더 강한 처방을 내리셨구나. 이번 약은 아예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나를 짓눌렀다. 그러나 이게 잠을 푹 자서 더 자고 싶은 느낌이 아니라, 분명 무엇인가 인공적인 힘으로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마치 내시경 할 때 수면마취를 겪고 난 이후의 느낌처럼. 약간의 불쾌한 기분도 동반하였다.
확실한 것은 새벽에 거의 눈을 뜨지 않는 다는 것이지만 아침에는 지독한 느낌, 심할 때는 두통 비슷한 것을 느끼면서도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문제였다. 특히나 그럼에도 새벽에 화장실을 가거나 하면서 억지로 눈을 떴을 때는 정말 마취에서 깨는 느낌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어두운 시야와 지독한 두통, 온몸을 억누르는 느낌.
그러나 이렇게 징징거리지 않아도 해결방법은 두가지가 있음을 알고는 있었다. 첫째는 약을 아예 일찍 먹고 일찍 자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평일은 어렵더라도 주말이라도 푹 늦잠을 자는 것. 그리고 사실 앞선 증상을 겪음에도 약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언젠가는 저 느낌으로 푹 늦잠을 잘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에 내가 병원을 간 것이었다. 시시콜콜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헤쳐 나가야 할 다양하고 많은 일들, 회사의 압박감, 나름의 활동들, 그 와중에 집도 이사를 하게 되면서 게으름을 곁들인 주말 아침 같은 것들은 멀리만 있었다.

5. 그러나 결국에는 이 약을 포기하게 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서움을 느끼며 멈추게 되었다. 그것은 이사 전날, 이사 당일, 이사한 다음날 이렇게 삼 일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내가 그만 이삿짐을 포장하며 약을 잃어버린 것이다.

두어시간 씩 잤나. 사실상 거의 잠에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이사 당일에는(이사도 포장이사가 아닌 원룸이사를 부른 상태여서 내가 일을 같이 해야 했다.) 짐을 옮기다가 그만 호흡곤란까지 겪고 말았다. 물론 이사 전날까지 출근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인 것도 큰 이유였겠지만. 아무튼 네번째 날이 되고서야 약을 찾았고, 그것 덕분인지 이사를 일단 마쳤다는 안도감인지 다음날은 좀더 잘 수 있었다.

원래는 병원 예약일이 되어도 조금 미루거나 하면서 방문하였는데 이번에는 바로 방문하게 되었다. 선생님 약을 바꿔주세요. 약을 안 먹는 기간동안 잠을 아예 못 잤습니다.

그 약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무서움까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싸함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약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었구나. 의사선생님이나 약을 원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노력을 더 했어야 했나' 라는 표현을 쓰면 다소 우스꽝스러울지 몰라도, 약에 효과에만 기대어 잠을 자려고 했던 것에 대한 묘한 자책감이 있었다.

나는 잠에 드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던가. 돌이켜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었다. 줄였다고 줄였줄였지만 여전히 음주는 끊을 수 없었고, 늦은 시간까지 무엇인가를 하다가 권장 수면시간이 지나서야 침대로 가기 마련이었다. 자기 전까지 핸드폰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너무나 교과서적인 것이지만 자기 전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고 있으면서, 좀더 강한 약만 찾으려 했던 것을 느끼게 되었다.

6. 다시 몇 번의 사이클을 돈 후, 지금은 앞선 '아침까지 일어나기 힘든 약'을 반 알씩 먹고 있다. 물론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그 후 내가 거짓말처럼 잘 자는 습관을 기르는 일 따위는 없었다. 다만 좀더 술을 줄이고, 중요한 일을 앞두면 좀더 일찍 자리에 들기. 집 밖에 나가면 잠자리가 괜찮은 숙소 잡기 정도 실천하고 있다. 사실 증상은 전보다 좀더 심해져서 밤 중에 눈을 뜨는 시간이 매우 규칙적으로 변하고도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고민 중이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과정들을 통해 약을 먹는다는 것, 또 약에 효과를 받는 것과 약의 효과에 기대하는 것에 대한 경험들을 정리하고자이다. 지금의 시기가 지나면 분명 약이 없어도 잘잘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의 긍정적 비전과, 그럼에도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또 약을 먹지 않은 날에는 괜히 잠자리에 찜찜해 하는 것이 반복되는 나날이다. 궁극적으로는 회사를 때려 치는 날이 오면, 뭐 로또라도 당첨이 된다면 잘잘 수 있을까. 잠이라는 인간 본연의 것이 과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날을 기다릴 뿐이다.



강릉의 육사시미. 은근히 소고기에 진심인 지역들이 한 곳씩 있다. 뭉텅이 등의 이름으로 잘 알려진 (현지 분들은 생고기라 하던데) 대구도 그렇고 광주의 일부 지역도 싱싱한 소고기 회에 자부심이 있는 경우가 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이다. 횡성 한우가 유명한 덕인지 강원도가 소를 잘 키우는 곳인지 은근 소고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곳들이 있다.

내가 강릉을 가면 꼭 방문하는 육사시미 집은 꽤나 오래 전 우연히 알게 된 가게였다. 식당이 아닌 식육점이다. 강릉을 자주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 인근을 방문하게 되면 꼭 들려볼 정도이다. 강릉에 머물게 된다면 육사시미를 사와 숙소에서 소주와 한 잔씩 하고는 한다. 가격도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인데 신선한 쫄깃함 역시 서울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도 강릉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저녁을 먹은 상황이었음에도 너무 먹고 싶어서 한번 사먹고, 서울에 올라가기 직전에 포장으로 또 사왔다. 부탁을 안 드렸음에도 서울까지 간다고 하니 보냉으로 포장을 해주신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무가지이며 온라인, 문화 공간 등에 무료 공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5. 5 / 33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DM가능
이번달 참여 필진 : 김희진, 오종원, X, 이채연, 한량윤씨